

‘배드민턴 전설들’ 다 모였네

하태권·길영아·김문수 감독, 이경원 코치 등
올림픽 금메달 출신 지도자 봄철대회 총출동
1996년 전영오픈 금메달 김학균 코치로 참가

강원도 화천에서 열리고 있는 2015전국봄철
종별배드민턴리그전(3월 11~19일)을 찾은 관
중을 즐겁게 하는 것은 코트 위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뿐만이 아니다. 이번 대회에는 이용대(삼성
전기), 성지현(MG세마을금고) 등 세계 최고 수
준을 자랑하는 국가대표 출신들이 총출동했다.
세계랭킹 상위권의 국가대표선수들이 대거 출
전하면서 세계선수권대회 수준의 박진감 넘치
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관중의 눈은
코트뿐 아니라 그 바깥에서 선수들을 열심히 응
원하고 전술·전략을 지시하는 감독과 코치들에
게도 쏠린다.

배드민턴 실업팀에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
년의 스타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2004아테네올



하태권 요넥스 감독

레이어 출신의 40대 젊은 감독은 패기 있는 목
소리로 “항상 우승을 노리는 명문팀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며 외치고 있다.

삼성전기 길영아(45) 여자팀 감독은 1990년
대 ‘배드민턴 퀸’으로 불리며 세계무대를 주름
잡았다. 1992바르셀로나올림픽 여자복식 동메
달, 1996아틀란타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여자
복식 은메달을 목에 건 최고의 선수였다.

포스코특수강 이경원(35) 코치는 2004아테네

림픽 남자복식 금메달, 2000시드니올림픽 남자
복식 동메달에 빛나는 하태권(40) 요넥스 감독
은 이번 대회가 사령탑
데뷔전이다. 삼성전기
와 국가대표팀에서 오랜
기간 코치로 활동한 하
감독은 1일 요넥스 감독
으로 취임했다. 스타플

올림픽 여자복식 금메달리스트다. 2008베이징
올림픽에선 이효정과 함께 여자복식 은메달을
따냈다. 아직도 현역 선수들과의 연습경기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실력을 과시하며 맹훈련을 이
끌고 있다.

삼성전기 김문수(52) 감독은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전설적 선수였다. 박주봉 일본대표팀 감독
과 함께 세계무대를 호령했다. 배드민턴이 처음
으로 올림픽 정식종목이 된 1992바르셀로나대
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배드민턴 국제대회 중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
는 전영오픈 1996년 단식 금메달리스트였던 김
학균(44) 김천시청 코치는 “국제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던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다. 올림픽
등 국제대회 정상에 도전하는 선수들에게 기술
과 경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힘이 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선수들을 지원하는 환경이 크게 좋
아졌다. 더 열심히 가르치겠다”고 다짐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ikh



김천시청 고성현(앞)이 16일 강원도 화천체육관에서 열린 2015전국봄철종별배드민턴리그전 6일째 남자 일반부 조별예선 광명시청과의 경기에서 4복식 주자로 출전해 스매싱을 하고 있다. 뒤는 파트너 손원호.

화천 | 김충원 기자 won@donga.com 트위터 @beanjun

이용대-고성현, 동지에서 적으로 ‘전승 경쟁’

■ 전국봄철종별배드민턴리그전 6일째

국가대표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 ‘단짝’
소속팀 삼성전기·김천시청 5전승 조1위

지금은 작별했지만 한때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에 함께 오르며 세계 정상을 지켰던 이용대
(삼성전기)와 고성현(김천시청)이 소속팀의 자
존심을 걸고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다.

16일 강원도 화천군 화천체육관에서 열린
2015전국봄철종별배드민턴리그전 6일째 남자 일
반부 단체전 조별예선에서 삼성전기와 김천시청
은 5전승을 달리며 A조 공동 1위를 놓치지 않았다.
김천시청은 광명시청을 3-1로 눌렀다. 국가

대표 손원호가 1단식에서 광명시청 최승을
2-0(21-9 21-12)으로 이겨 기선을 제압했다.
2단식에선 광명시청 김동현이 김천시청 주명균
을 만나 접전 끝에 2-0(21-14 24-22)으로 따돌
렸다. 3복식에선 김천시청 엄지관-김승민이 광
명시청 김한수-최승일에게 2-0(21-18 21-13)으
로 승리했다. 김천시청의 4복식 주자는 남자복
식 세계랭킹 6위를 지키고 있는 고성현이었다.
대표팀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신백철 대신 손
원호와 조를 이룬 고성현은 특유의 강한 스매싱
을 앞세워 김동현-김희섭을 2-0(21-11 21-15)
으로 꺾었다.

삼성전기도 성남시청에 3-0 완승을 거뒀다.
김기정과 함께 4복식을 준비한 이용대는 팀이
3복식에서 경기를 끝내 코트에 서지 않고 팀 승

리를 지켜냈다.

B조에선 MG세마을금고가 밀양시청에 3-2로
이겨 5전승으로 1위를 질주했다. 여자 대학부 단
체전 결승에선 대전대가 인천대를 3-2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ikh

경기 결과

배드민턴

- 2015 전국 봄철 종별 배드민턴 리그전(강원 화천군 화천체육관)
 - 남자 일반부 단체전 A조=삼성전기(5승) 3-0 성남시청(2승4패), 김천시청(5승) 3-1 광명시청(1승4패), 스키야문스(3승2패) 3-0 단풍(5패)
 - 남자 일반부 단체전 B조=상무(3승2패) 3-2 단풍시청(2승4패), 세마을금고(5승) 3-2 밀양시청(1승4패), 요넥스(3승2패) 3-0 충주시청(5패)
 - 여자 일반부 단체전 A조=삼성전기(4승) 3-0 포천시청(2승2패), 포스코특수강(1승3패) 3-0 김천시청(4패)
 - 여자 일반부 단체전 B조=KGC인삼공사(4승1패) 3-0 화순군청(2승3패), 전북은행(3승2패) 3-0 세마을금고(4승1패), 명동군청(2승3패) 3-0 서울시청(5패)
 - 남자 대학부 단체전 A조=한림대(1승3패) 3-0 초당대(4패), 인하대(3승1패) 3-0 경남기대(2승2패)
 - 남자 대학부 단체전 B조=백석대(3승1패) 3-1 원광대(2승2패), 동의대(4승) 3-0 경희대(1승3패)
 - 여자 대학부 단체전 결승전=대전대 3-2 인천대

조던 스피스 PGA 발스파 챔피언십 연장 우승



조던 스피스(22·미국·사
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발스파 챔피언십(총
상금 590만 달러)에서 연
장 접전 끝에 우승했다. 스
피스는 16일(한국시간) 미
국 플로리다주 팜하버의 이니스브룩 골프장(파
71)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함께 10언

더파 274타를 쳐 패트릭 리드, 선 오헤어(이상
미국)와 동타를 이룬 뒤 연장 3번째 홀에서 버디
를 잡아 정상에 올랐다. 2013년 PGA투어 신인
왕 출신인 스피스는 그해 7월 존디어클래식 우
승 이후 1년8개월 만에 통산 2승째를 달성했다.
우승상금은 106만2000달러(약 12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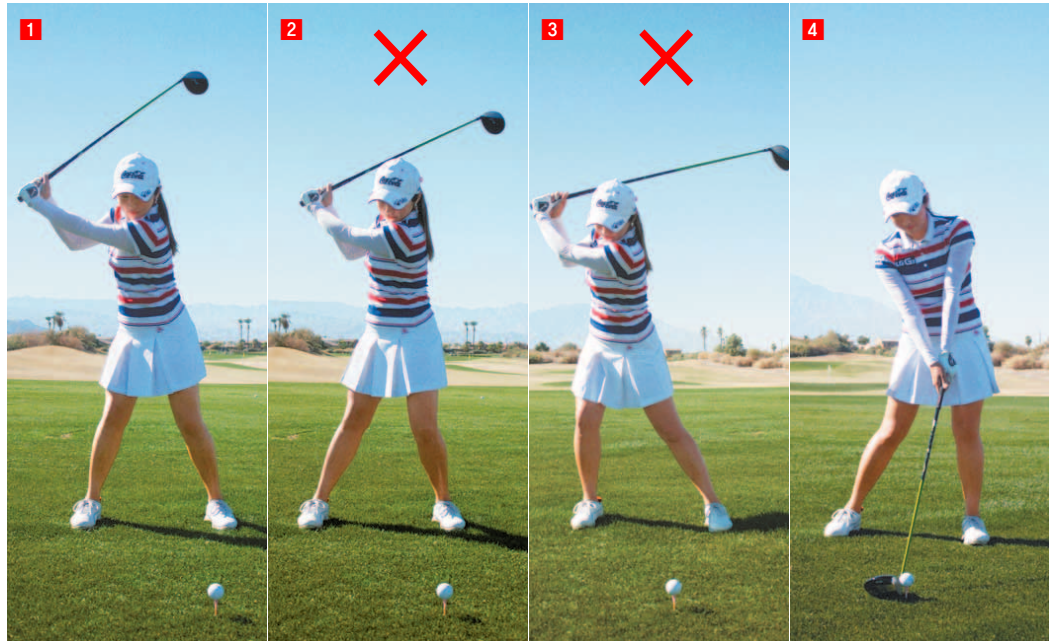
“삼성증권 테니스팀 해단 이후 유망주 지원”
대한테니스협회 주원홍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증
권 테니스팀을 해단하는 대신 삼성증권이 정형
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후원하고, 협회에는 유
망주 육성 지원금 연간 3억원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3년이지만, 협회의 유망주
육성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3년을 추가로 계
약할 수 있다.

편진 | 정용문 기자 sadzoo@donga.com 트위터@sadzoo

르코스포츠와 함께하는 이보미의 힐링골프

| 드라이브샷의 숨은 비거리를 찾아라! ❶ 백스윙은 오른발, 임팩트는 왼발



❶ 백스윙 틈에서 체중은 오른발에 약 60%가 실리도록 한다. ❷ 체중이 왼발 쪽에 남아 있으면 역C자형의 스윙자세가 만들어져 다운스윙 때 충분한 힘을 실을 수 없게 된다. ❸ 오른쪽 무릎이 몸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과도한 체중이동은 스윙의 밸런스를 무너뜨린다. ❹ 체중이 왼발로 완벽하게 이동되면서 임팩트가 이루어져야 강하고 힘이 실린 스윙을 할 수 있다.

임팩트 때 ‘왼발 7·오른발 3 정도’ 체중 실려야

백스윙으로 갈수록 오른발로 체중 이동
다운스윙 시작과 함께 체중 왼발 쪽으로

체중이동은 거리 증가의 핵심적인 요소다. 강
하고 빠른 스윙을 하더라도 올바른 체중의 이동
이 뒷받침되어야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먼저 스윙 중 체중이 어떻게 이동되는가를 먼
저 생각해보자. 어드레스 때 체중은 양발에
50대50으로 균형을 이루게 한다. 중요한 포인트
는 체중이 발뒤꿈치 쪽이 아닌 앞쪽에 집중되어
야 한다. 체중이 발뒤꿈치 쪽에 쏠려 있으면 백
스윙 때 몸이 뒤쪽으로 함께 치지는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체중이 발 앞쪽으로 집중될 때 조금
더 부드러운 신체회전을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스윙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유지된 체중은 스윙 중 조금씩 달리
다. 백스윙으로 갈수록 오른발로 체중이 이동된
다. 백스윙 틈에 이르렀을 때는 약 6대4 정도의
비율로 오른발에 많은 체중이 실린다. 이 상태
에서 다운스윙 시작과 함께 체중을 왼발 쪽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다운스윙 시작과 함께 점차적
으로 체중을 왼발 쪽으로 이동시키고 임팩트 때
왼발에 7, 오른발에 3 정도의 체중이 실려야 최
대의 스윙에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다. 이후 체
중을 자연스럽게 왼발 쪽으로 더 이동시켜 피니
시 동작에서는 왼발에 9, 오른발에 1의 비율을
유지하는 게 좋다. 모든 동작이 비거리에 영향
을 주지만, 이 가운데 숨은 비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핵심은 백스윙 틈과 임팩트다.

아마추어 골퍼들은 상체의 회전이 프로만큼
따라오지 못한다. 왼쪽 어깨가 턱 아랫부분까지
이르도록 상체를 회전하는 게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골퍼들이 많다. 이런 골퍼일수록
백스윙 틈에서 오른발로의 체중이동이 동반되
어야 거리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왼 무릎을 살
짝 구부리면서 오른발 쪽으로 체중을 이동시키
면 상체의 회전에 쉬워지고 체중이동도 훨씬 안
정되게 진행할 수 있다. 또 스윙 중 오른발이 몸
의 바깥쪽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
야 한다.

여기까지 진행되면 스윙의 50%를 완성한 셈
이다. 다음은 다운스윙과 임팩트다. 백스윙 때
모아둔 힘을 공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선 다
운스윙과 임팩트 때 오른발에 실려 있는 체중을
왼발 쪽으로 완벽하게 이동시켜야 강하고 힘이
실린 스윙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때 체중이동
이 잘 되지 않는다면 백스윙 때 왼발 뒤꿈치를
 살짝 들었다가 다운스윙을 하면서 뒤꿈치로 지
면을 내딛듯이 밟아주면 체중이동에 도움이 된
다.

도움말 | 프로골퍼 이보미
정리 |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한국여자골퍼, ‘미·일·유럽 싸슬이’ 이유 있다

LPGA·JLPGA 등 10개 대회 9승
연령별 탄탄한 선수층 ‘돌풍의 힘’

미국에서 시작된 한국여자골퍼들의 우승 행
진이 유럽을 넘어 일본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말 그대로 ‘코리아 태풍’이다.

10개 대회에서 9승. 한국여자골퍼들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와 유럽여자프로골
프투어(LET) 그리고 일본여자프로골프(JLPG
A) 투어에서 기록한 우승 숫자다.

우승 행진은 1월부터 시작됐다. 최나연(28·S
K텔레콤)이 LPGA 투어 개막전인 코즈 챔피언
십 우승을 차지한 이후 바하마 클래식(김세영),
호주여자오픈(리디아 고), 혼다 타이랜드(양희
영), HSBC 위민스 챔피언십(박인비)까지 5개
대회를 모두 한국과 한국계 선수들이 차지했다.

유럽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호주교포
오수현(19)이 개막전인 RACV 레이디스마스터
스 우승을 시작으로 뉴질랜드여자오픈(리디아
고), 미션힐스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유소연)
까지 싸슬이했다.

가장 늦게 개막한 일본에서도 한국선수들의
우승 소식이 들려왔다. 개막전 우승 사냥에는
실패했지만 2번째 열린 요코하마타이아 PRGR
레이디스컵에서 베테랑 이지희(36)가 정상을 차
지하며 우승행진에 동참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우승한 선수들의 경력
과 나이다. 우승자의 연령을 보면 10대 2명,
20대 5명, 30대 1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
다. 또 김세영은 올해 LPGA에 진출한 루키로
데뷔 2주 만에 우승했고, 최나연(2년2개월)과
양희영(1년5개월), 이지희(2년10개월)는 오랜
침묵 끝에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부진에서
탈출했다.



박인비

유소연

돌풍은 탄탄한 선수층에서 나온다.

한국선수들은 우승뿐 아니라 5차례나 준우승
(공동 2위 포함)을 차지했다. 코즈 챔피언십(장
하나)과 바하마 클래식(유선영), 호주여자오픈
(양희영), 혼다 타이랜드(이미림),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박인비)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동시에
서킷했다. 그 밖에도 매 대회 3~4명 이상이 톱
10에 이름을 올려 리더보드를 태극기로 꽂 채우
고 있다.

한국여자골프 돌풍의 핵은 꾸준한 강자들의
등장이다. 올해만 해도 김효주(20·롯데), 김세
영(22·미래에셋), 박규정(20·CJ오쇼핑), 장하
나(23·비씨카드) 등이 LPGA로 진출했고, 김
하늘(27·하이진트로)과 정재은(25·비씨카드),
배희경(23·호반건설)은 JLPGA투어로 무대를
올랐다. 모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실력을 검증받은 강자들
이다.

한국여자골퍼의 우승행진은 현재진행형이
다. LPGA투어는 휴식을 끝내고 19일(한국시
간)부터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JTBC 파운
더스컵(총상금 150만달러)을 개최한다. 10번째
돌풍의 주인공은 누가될까.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